

대선 69일 앞으로…박-문-안 3각경쟁 가열

朴, 내홍 수습…전열정비 文-安, 野단일화 신경전

18대 대선이 10일로 6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간 3각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 안후보에 밀리며 수세국면에 놓여 있는 박후보는 반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문후보와 안후보는 지지율 확산을 위해 분전하는 동시에 애권후보 단일화를 겨냥한 기싸움을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박 후보는 '인적쇄신내분'에 대한 수습을 마무리하고 새진용을 갖춘 중앙선대위와 함께 대선 레이스를 재개할 채비다. 박 후보는 10일 한광옥 전 고문의 국민대통합위원장직 임명에 반발해온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의 임장을 고려해 한 전 고문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지역화합위원장직에 임명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또 이날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비박(非朴: 비박근혜) 인사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회동을 가졌다. 친박·비박을 아우르는 협력형 인사인 김무성 전 의원을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기용하려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됐다. 박 후보는 이를 통해 '쇄신과 통합'을 대선전의 메인 이슈로 전면화한 상태다.

◇문재인=문 후보는 이날 충청과 전북을 연이어 방문, 중원과 뒷발 표

심 다지기에 나섰다. 문 후보는 오전 대전과학벨트 부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연이어 방문, '성장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과학기술인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연구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오후에는 전북 정읍의 한 농장으로 이동, 직접 콤바인을 운전해 벼를 수확하고 전환경 EM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새참을 하며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완주에 있는 전북도당에서 열리는 전북지역

당원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새만금 사업 안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북 발전 구상'을 전달하고 당원들을 격려했다.

◇안철수=안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충남을 방문해 중부권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안 후보는 오전 충남 천안의 여성농민이자 과부들로 거인 조영숙씨의 오이 농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새로운 방식으로 농업 경영의 혁신을 이뤄낸 사례에 주목하면서 안 후보가 내세우는 혁신경제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오후에는 대전으로 이동해 KAIST에서 '과학기술과의 소통으로 다음 세대를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각 분야 전문가가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몇 년 전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사태에 대해 침묵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제가 서울대로 옮긴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여서 떠나기로 한 조직에 누가 될까 조심스러워 얘기 못 했고, 몇 달 뒤에 나름의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오형근, 동구청장 보선 출마 선언

오형근(50)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 공동화로 낙후된 동구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12·19 동구청장 보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후속사업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보완하고, 전대병원, 조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구 확장 정책과 함께 지역 경제공동체의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 일번지 동구를 만들기 위해 '교육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창의적인 초등교육, 반듯한 중등교육, 명문고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전남시인협회 후원회장, 광주시 체조협의회 회장, 광주 JC 특우회 지구회장을 맡고 있다.

손재홍,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광주시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운영된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손재홍(민주·동구 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손 의원은 "여성의 조출연령이

늦어지는 만흔화에 따라 출산 기피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편의 증진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광주시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남, 민주열사 기념관 건립조례 의결

광주시의회는 10일 김영남 의원(민주·서구 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건립 및 운영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망월 묘지공원 제3묘원(5·18 사적지 제24호) 인근에 기념관을 규모 있게 건립하고, 체험과 교육을 위한 안내자를 둬 주도 공연, 상설 전시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민주화와 인권·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한 민족·민주열사들이 5·18 구묘역에 안장되어 있지만 마땅한 주도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주도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제라도 열사들을 추모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화 "시 산하·투자기관 진단해야"

광주시의회 홍인화(민주·북구 4) 의원은 10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에 대한 특별 조사 진단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掴코 등 투자유치사업의 낙败성이 우연이 아닌 조직과 사람의 문제"라며 "문화산업의 선순환 구조정착,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효율적인 조사재판과 인력의 적재적소 기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광주시 직접 투자사업의 재검토를 제안하면서 EMIG의 극장용 3D변환 기술력 재검증과 이미 투자된 30억원에 대한 공개 검증도 요구했다.

조오섭, 교도소 무상 양여 답변 요구

광주시의회 조오섭(민주·의원은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대선 후보들에게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공개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게 된 이유는 80년 5·18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광주교도소는 반드시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광주시가 대선 후보들에게 당당히 광주교도소 부지 무상양여에 대한 공개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날 특위에 앞서 안 위원장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할 것 이냐'라는 질문과 관련, "후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앞서 9일 열린 시정민주화 추진 문제를 놓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마찰을 빚었던 김 위원장이 당무를 중단한 지 닷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논란이 된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박근혜 후보가 직접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통령 권한 축소…권력 남용 막겠다"

역대 정권 '살생부' 만들어 '한풀이 정치' 반복돼선 안돼

■ 이건개 대선 후보 인터뷰

그는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취임 이후 독점 국가권력을 남용해 '살생부'를 만들어 구속 수사 특명을 남용하는 등 '한풀이'를 해왔다"며 "대통령 권한을 외교·안보·국방으로 제한하고, 검찰과 국세청 등 공권력 기관은 청와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법치 파괴, 극도의 푸블리즘으로 국가신신이 파괴됐다"며 "대통령 권한을 외교·안보·국방으로 제한하고, 검찰과 국세청 등 공권력 기관은 청와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법치 파괴, 극도의 푸블리즘으로 국가신신이 파괴됐다"며 "대통령 권한을 외교·안보·국방으로 제한하고, 검찰과 국세청 등 공권력 기관은 청와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립 5·18 묘지

를 참배한 뒤 가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의 많은 대통령들은 국가권력을 독점하며 인신

구속 특별지시와 공권력 남용으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냈다"며 "본

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에 대해 "국가 철학이 없는 후보들"이라며 "대중 인기 영합주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남북문제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은 현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됐고, 남북관계 회복으로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며 "특히 피해자였던 자신이 동서화합에 앞장서 참여한 국민대통합의장을 여겨 기뻤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전국 투어를 통해 정치개혁의 청사진과 참된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건개 후보는 제1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31세에 최연소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했으며, 대검 중앙수사본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쳐 제15대 국회의원(자민련)을 지냈다.

이후에는 "국제적인 국가개혁에 대한 공약과 공권력에 대한 이해가 아주 미약하다"며 "책임과 구체성이 있게 국정운영을 할 수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근혜, 국민대통합위원장 직접 맡을듯

김종인·안대희 당무 복귀

장을 맡게 되면 사퇴하겠다는 기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혀 한 전 고문이 향후 직책에 따라선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남아 있다.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임명하는 데 반대해 온 위원장은 이날 당무에 복귀, 회의를 주재했다. 사실상 특위 업무를 중단한 지 닷새 만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지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 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화순도곡(온천 모텔) 대234㎡, 건4280㎡ 감정가 42억7천 최저가 9억7천	화정동(예식장) 대1094㎡, 건4489㎡ 감정가 41억5천 최저가 21억2천	두암동(목욕탕) 대870㎡, 건1256㎡ 감정가 12억7천 최저가 5억3천	소래동(독서실) 대561㎡, 건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8억7천	상촌동(원룸) 대294㎡, 건1494㎡ 감정가 5억3천 최저가 3억7천	화순도곡(무인텔) 대904㎡, 건2628㎡ 감정가 6억3천 최저가 4억4천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금동(목욕탕) 대91평, 건303평 감정가 10억 매매가 4억7천(협의후 결정)	교산바이오에너지(공장) 대3025평, 건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협의후 결정)	담양양금성(공장) 대1482평, 건299평 감정가 7억1600만 매매가 5억(협의후 결정)
용봉동(하미스포렉스) 대4076평, 건12943평 감정가 515억7천 매매가 160억(시설별도)	북구 대촌동(2층공장) 대1506평, 건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32억5천(협의후 결정)	화정동(예식장) 대330평, 건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5억(협의후 결정)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속박시설/상가 김규식